

(제보자2)

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

오봉남(男·78)

어뜬 사름이 아홉 번 과거에 낙방을 했고 ‘에이, 이제 살양 무신 거 하겠냐’고 막 낙심하고서는 목메영 죽젠 나무에 베를 메달양 죽을랴고 훌 쯤에 어떤 백발을 혼 노인이 나타낭 흐는 말이 “아, 사름이 병들엉 죽기도 설러워 흐거든 사름이 어떻 목메영 죽젠 흐느냐?”
고 말이지

그 사름이

“아, 어뜬 노인네가 지나는 질¹⁾이나 갈 것이지, 나는 그만한 소연²⁾이 잊어 죽을랴고 혼다.”
고 흐니

“무슨 이유냐?”고 흐니

“난 이러 이러 허여 세상을 살아도 흥미 없으니까 죽을랴고 혼다”
고 흐니

“그러지 말고 내일 특과(特科)가 잊으니까 내일 가민 뜰림어시 등과흘 것이다.” 말이여.

“소실 이렇게 이렇게 허영 큰 종이에 자그만 글자를 썽 빙허게 돌리면서 무슨 자냐 물을 거니까, ‘매연(薦)자라 흐민 뜰림어시 등과할 것이다.”

그렇게 해서 그 노인이 간 데 어서. 그 노인이 그대로 이서시문³⁾ 그 말을 안 들을 건다. 인멸 불견 간 딕가 어시니 촘말 이제 신선이구나 했고 북향사배⁴⁾ 달려갓지. 달려강 보난 과연 특과가 잇더라.

그래 거 뭐 지꺼진⁵⁾ 거지. 백발백중 이건 믿어논 것 아니라게.(웃으며)

영⁶⁾ (손짓) 돌리멍 무슨 자냐 물은 거지. 그 노인이 말할 때 빙허게 돌릴테니까 ‘매연’자라고 허라 흐니까는 빙허게 돌릴테니까 돌릴 생각이 몬저 떠올라 분거지. 그러니까 그만 ‘빙빙 연’자라고 얘기를 혼거라. 당최 ‘빙빙 연’자엔 헌 말은 해보도 안 해신디 빙허게 돌린다 헌 것에 그만 아주 기뻐부니까 그렇게 헌거라.

‘빙빙 연’자라고 허니까 그렇게 해독을 허니까 누계가⁷⁾ 잘 됐다 못 됐다 흐기 전에 저도 뜰린

1) 길

2) 사연(事緣)

3) 있었으면

4) 즉시

5) 기쁜

6) 이렇게

7) 누구가

건 알거든.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긴 흐고 보니 잘못 얘기 훈거라.

‘아, 이젠 안됐구나’ 허영 가젠 멧 자국 안 가니까 어뜬 선비가 돌려가고 잇드라 이거야. ‘뜰림 어시 이 선비도 과거보레 오는 선비구나 나는 이왕 안됐지마는 이 사름이라도 도와주자 말이야. 도와주자.’ 해서 이 선비보고 이제 이리이리 얘기 흐면 뜰림어시 될 것이다⁸⁾니

“어째서 그렇게 알면서 그냥 나오느냐?”

흐니까, 소실 얘기를 “나는 ‘매 연’자라고 훌 것을 갑자기 ‘빙빙 연’자라 했기에 안 됤거고, 뜰림어시 ‘매 연’자라고 흐면 등과한다”

그러니까 그 선비도 그러면 조금 기둘리라 흐고 가서 “먼 뒤서 오는 것이 시간이 좀 늦었습니 다” 흐니까, 그러냐고 “무슨 자냐?” 흐거든

거 침착하게시리⁸⁾

“예, 서울말로 아뢰리까 시골말로 아뢰리까?”

그러니까 거 무슨 소리냐고

“서울말로는 ‘매 연’자올시고, 시골말로는 ‘빙빙 연’자올시다”

고 흐니까,

“아, 그러냐”고 “아까 그 시골선비 부르라”고

그래서 둘이 동시에 과거를 했다는 거주.

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, 『국문학보 제11집』, 1992, pp.227-228.

8) 침착하게